

玉局齋 李運永의 〈林川別曲〉에 나타난 近代性 樣相*

－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형을 중심으로

박수진**

【 차 례 】

- I. 머리말
- II. 18세기 가사문학에서의 근대성 문제
- III. 〈林川別曲〉의 작가 문제와 문학적 특성
 - 1. 〈林川別曲〉의 작가 문제
 - 2. 〈林川別曲〉의 문학적 특성
- IV. 〈林川別曲〉에서의 근대성 양상
 - 1. 사랑과 욕망에 대한 저항
 - 2. 신분 질서의 해체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18세기 가사 작품인 옥국재 이운영의 <林川別曲>에 나타난 근대성 양상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8세기는 시대적으로 파격적인 모습을 형성한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성을 드러내기에는 가장 알맞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도 사상과 체제의 변화가 일어났고, 봉건사회 붕괴

* 이 논문은 2018년 7월 6일 한국 한양대학교와 중국 남창대학교에서 “18~19세기 동아시아 시가에서 차이의 근대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동 학술연구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술연구원.

의 가장 큰 요인인 신분체계가 흔들렸다. 이 변화는 새로운 근대의식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林川別曲>은 이운영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보는 경향도 있다. 이는 이운영이 진보적인 실학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양반됨을 욕보이면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논자는 여항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林川別曲>은 애정가사로 알려졌지만, 풍자비판적인 특징이 강하기에 애정가사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이며, 서사적 양상이 대화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林川別曲>에 드러난 근대성 양상으로는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사랑과 욕망에 대한 저항’이고 다른 하나는 ‘신분질서의 해체’이다. 그레마스 행위소 모형으로 이 두 가지 양상을 제시하였다. <임천별곡>은 유교적 이데올로기, 신분제도 등의 조선의 봉건사회에 대한 저항과 반항의 형태로 이타적인 요소들에 대한 변화하는 근대적 조선을 드러내고자 하는 노력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논자는 ‘저항’과 ‘해체’라는 말로 대신하였지만, 18세기 조선의 봉건사회에 대한 부패한 지배층과 착취당하는 서민층의 삶을 늙은 생원과 할멈으로 비유하여 제시하였던 것이다.

18세기 등장한 전통적인 봉건사회의 비판은 중세와 근대를 구별 짓는 헤게모니의 변화로 드러났고, 이러한 헤게모니의 변화는 18세기 전후의 차이를 드러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8세기 가사문학에서는 이러한 헤게모니가 정확하게 구분되지는 못하였지만,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정착되어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논자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으로 <임천별곡>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열쇠어 : <임천별곡>, 18세기, 근대성, 신분질서, 욕망, 저항, 해체

I. 머리말

본고는 18세기 가사작품 가운데서도 玉局齋 李運永의 <林川別曲>에 나타난 근대성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18세기 이전과 이후 문학에 나타난 차이의 근대성을 찾아볼 것이다.

18세기는 시대적으로 파격적인 모습을 형성한 시기이므로, 근대성을 드러내기에는 가장 알맞은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치, 경제, 사

회, 문화의 다방면에서는 사상, 체제 등의 변화가 일어났고, 봉건사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신분체제마저 흔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곧 새로운 근대의식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8~19세기 동아시아에서는 중세 봉건체제가 서서히 해체되면서 서양과 다른 異種의 근대가 싹트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상품화폐경제가 나타나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존재양식이 달라졌으며, 삶의 방식, 의식과 세계관, 표상체계도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상인과 중간층이 성장하였으며, 이들은 엘리트들과 다른 시공간에서 다른 문화와 일상을 구성하였다. 상당수 사람들이 봉건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고 비판하였으며, 유교 윤리의 굴레에서 벗어나 성정의 자유를 희구하기 원하였다.¹⁾ 이러한 변화는 문화의 개방과 소통을 통한 정보화, 세계화의 힘이었다²⁾고도 말한다.

18세기 가사작품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회적 변화가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난다. 18세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의 가사작품들은 대부분이 江湖閑庭을 노래하거나 혹은 儒敎의 倫理와 관련된 敎訓的인 내용을 담은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18세기 이후부터는 遊覽이나 紀行을 주제로 한 작품, 男女간의 사랑과 이별을 나타낸 작품, 양반사회의 批判과 諷刺를 노래한 작품 등 다양한 소재로 창작된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이도흠, 「18~19세기 동아시아 시론의 변모 양상과 시조의 실제」, 『고전문학연구』 36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31쪽.

2) 18세기의 변화는 정보화, 세계화의 힘이었다. 문화의 개방과 소통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 처리 방식과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판단 근거도 바뀌었다. 물질 토대의 변화도 한몫했다. 이에 힘입어 전에 보지 못한 괴상한 지식인들이 출현했다. 국가가 사정의 칼날을 빼들지 않을 수 없었으리만치 그 파급력과 영향력은 대단했다. 지식인들이 성현의 말씀이 담긴 사서삼경을 외면하고 패관소설에 몰두하거나, 경박한 소비문화에 길들여져 텃밭한 도리에서 멀어지는 풍조는 조선의 정체성을 일거에 허물어뜨릴 수 있는 위험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국가는 뒤늦게 불운서적 반입과 사치성 소비재 수입을 금했다. 정조는 문체반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 정보에 환호하는 젊은이들의 성향을 원천적으로 되돌리려 했다. 정민,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61~62쪽.

본고에서는 李運永³⁾의 가사작품 중에서 ‘차이의 근대성’을 논하기에 가장 적합한 작품을 선정하여 그 작품을 다루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운영의 가사작품 6편- <착정가>, <수로조천행선곡>, <초혼가>, <순창가>, <세장가>-은 근대성을 논하기에 충분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근대적 양상이 비교적 잘 드러난 <임천별곡>을 한 작품을 대상으로 삼아 근대성 양상을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근대성 양상을 논하고자 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되었지만, 작품을 구조화시켜 언급한 논의들을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논자는 구조화 하는 방법에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형⁴⁾을 적용시켜 보고자 한다.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형은 작품을 구조화시켜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고, 그 의미를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고에서는 18세기에 나온 근대성을 엿볼 수 있는 가사 작품으로 <임천별곡>을 선정하였고, 이 작품에서 18세기에 등장할 수 있는 근대성 문제에 대해 의미 작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작품의 의미 구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諺詞》 연구에서 소재영 교수는 각 작품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작품에 대해 평가하였다. 李運永은 麗末 三隱의 한 사람인 收隱 李穡(1328~1396)의 14대손이다. 그에 대한 논의는 후대에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요즘 들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운영은 18세기의 인물로 英祖(1725~1776재위) 및 正祖(1777~1800)의 치세기에 외직과 내직을 두루 역임하는 등의 전형적인 사대부였다. 이운영은 당시 권력의 핵심부와 관계를 유지하며 근거리에 있던 인물이다. 李運永은 천 여수에 이르는 한시를 남겼고, 그 한시를 통해서도 그 고유의 틀로 인해 전형적인 사대부의 보편적인 시각을 표현했다. 지금 《玉局齋遺稿》라는 문집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연사에 나와 있는 국문가사를 통해 성격이 다른 서민의 애환과 사회를 비판하는 독특한 시각을 통해 자신의 의식세계를 표현함으로써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그레마스는 행위소 모형을 의미 작용의 기본구조를 표상하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모사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의미론적 범주의 논리적 분절을 가시적으로 표상한 모델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성도는 한국 민담의 원형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이야기 즉, <춘향전>, <콩쥐팍쥐>, <별주부전>에 적용하여 다양한 서사구조에 사용되는 그레마스 이론을 제시하였다. 즉, 그레마스 행위소 모형은 탐색 모티프가 있는 영웅서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김성도, 『구조와 감성으로- 그레마스의 기호학 및 일반 의미론의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242~267면.

II. 18세기 가사문학에서의 근대성 문제

근대의 출발은 18세기로 삼는다. 그 근거로는 그 이전까지의 중세시대에 상-하의 수직적 가치와 질서체계를 이루어오던 궁중 문화 및 사대부 문화를 중심으로 한 고급 문화와 민중 문화를 중심으로 한 기층문화의 장벽이 도시와 상업의 발달로 생겨난 시정의 유흥문화 공간을 중심으로 서로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허물어지고, 이에 따라 수직적 문화질서가 수평적 질서로 재편되면서 시정의 다중에 의해 새로운 다중 문화가 생겨나 그것을 중심으로 근대적 가치와 이념, 질서가 자리를 잡아 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겠다.⁵⁾

‘근대’ 혹은 ‘근대성’이라는 용어는 19세기에서야 비로소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의 근대는 자생적 근대화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두 논의를 비판하는 대안들이 생기면서 대안적 근대화론과 화쟁시학이라는 관점으로 근대화론을 논의하기도 하였다.⁶⁾

역사학계에는 영·정조대를 근대 의식의 맹아기로 보았고, 이는 ‘근대

5) 김학성, 「근대논의 문제와 18세기 우리 시가」, 『한국시가연구』 28집, 한국시가학회, 2010, 18쪽.

6) 우리는 서구적 근대 모델에 기대어 우리의 근대화 논의를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잘 알려진 대로 우리의 근대화가 18~19세기에 외세의 개입 없이 자생적으로 태동하여 발전되어 갔다고 보는 내재적 발전론 혹은 자생적 근대화론이 제기되었고, 우리의 근대화는 곧 서구화로 보고 일본을 통해 간접으로 들어오든 서구에서 직접으로 들어오든 개항 혹은 갑오경장 이후 서구문화와의 교섭을 통해 일제 식민지를 거쳐 오면서 이루어졌다는 타율적 발전론, 혹은 식민지 근대화론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두 가지 근대화론에 대하여 전자는 객관적 지표나 실증적 자료 없이 한 민족의 우월성을 당위적으로 내세운 국수주의적 아집 내지 민족주의적 기획으로 ‘만들어진 근대’라고 비판하고, 후자는 식민사관의 종속 내지 역사의식의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러한 근대성 비판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근대적 주체를 배타적으로 자기 중심성만을 내세우지 않는, 존재론적으로 평등하면서 인식론적으로 겸손하여 타인과 나란히 병존하는 ‘관계적 주체’, ‘부드러운 주체’라 규정하고 이 같은 주체에서 근대의 동력을 살핀 대안적 근대화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화쟁시학이라는 독특한 관점으로 본 근대화론이 제출됨으로써 우리의 근대화 논의를 반성하면서 더욱 확장되고 심화된 논의로 나아가게 되었다. 김학성, 위의 논문, 『한국시가연구』 28집, 한국시가학회, 2010, 11~12쪽.

= 조선 후기'라고 하여 조선 후기의 의식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면서 임병양란을 거치면서 토지 제도의 개편과 함께 대동법, 균역법 등 조세 제도의 개정으로 경제를 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평민들의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사회의 혼란만 더하게 되었다. 과거제도의 문란으로 매관, 매직이 판을 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지방 관리들의 苛斂誅求는 극에 달해 결국 전정, 군정, 환곡 등 삼정의 문란을 낳았다. 사회의 혼란에 평민계층의 의식성장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 것이 신분제도의 혼란이다. 지금까지의 체제를 유지해온 가장 큰 틀이 엄격한 계급사회로서의 신분질서였는데, 조선 후기에 이르면서는 신분 간 이동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조선 초기에 창작된 가사작품의 주제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효시작품이라 일컫는 나옹화상의 <서왕가>는 불교적 성향을 띄어 중생들을 교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작품으로 알려진 반면, 정극인의 <상춘곡>은 작가가 나이가 들어 고향인 泰仁에서 은거하면서 자연과 함께 하고자 하는 안빈낙도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런 경향을 살펴볼 때, 초기에 발생한 가사작품들은 이처럼 종교적 성향이 강한 작품이거나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담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작품의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작품들은 계속 발전하여 송순의 <면앙정가>, 백광홍의 <관서별곡>, 정철의 <성산별곡>,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의 자연을 배경으로 하거나 풍경을 소개하는 등의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고, 더 나아가 님에 대한 사랑이나 그리움을 임금에 비유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박인로의 <오륜가>나 허난설헌의 <규원가> 등은 가사문학을 매개체로 남아 유교이념인 五倫을 토대로 하거나 봉건사회의 부녀자들의 怨望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조선 전기는 봉건사회가 기반이 되었으므로 작품 역시 그 주제가 봉건사회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제를 삼아 작품을 창작하게

7) 윤성현, 「후기가사의 정립과 근대의식의 발현」, 『후기가사의 흐름과 근대성』, 보고서, 2007, 16~21쪽.

되었던 것이고, 이후에는 여러 전쟁들이 발생하게 되고 의식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니 작품을 창작하는 관점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점차 조선 후기에까지 영향을 주었고, 봉건사회의 붕괴 현상으로 신분질서가 붕괴되고 신분제가 동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⁸⁾

18~19세기는 봉건사회의 과도기로, 봉건사회와 근대사회의 중간 단계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19세기는 근대사회의 진화가 시작된 시기이고, 18세기는 봉건사회의 잔재들이 남아 근대 혹은 근대성을 논할 수 있는 완전한 근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실정이다.⁹⁾ 하지만, 논자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첫 발을 내딛은 18세기가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19세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III. 〈林川別曲〉의 작가 문제와 문학적 특징

18세기 가사작품 가운데서도 《諺詞》¹⁰⁾에 소개된 李運永¹¹⁾의 가사

-
- 8) 조선 후기에는 신분 질서의 붕괴 혹은 혼란에 의해 신분제의 동요가 야기되고, 지배 구조의 모순과 폐단이 심각하게 드러나며, 기층 사회에 소속된 하층민의 경제력 및 문화적 감수성의 성장과 함께 현실 비판의 의식이 고조되는 등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가 17.18세기를 기점으로 서서히 일어남에 따라 주자주의의 관념적 경직성은 현실의 질서를 일방적으로 통어할 만한 힘을 점차 상실해 가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19세기로 넘어 오면서 봉건적 이념으로서의 주자주의는 이질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새로운 이념의 도전을 받기에 이르는데 이것이 곧 동학 이념, 천주교 이념, 개화 이념 등인 것이다. 김학성, 「가사의 실현화 과정과 근대적 지향」,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1982, 250쪽.
- 9)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할 때, 19세기는 18세기에 비해 해체기적 위상이 명료하게 드러나지도 않을뿐더러, 바로 근대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방법론적 전제들을 더욱 첨예하게 밀고 나아가야 하는 고충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고미숙, 『18세기에서 20세기 초 한국시가사의 구도』, 소명, 1998, 88쪽.
- 10) 그의 작품집인 《諺詞》라는 책은 1988년에 발견되었다. 그 때에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8세기 작품들과는 다른 경향의 작품들이라 지금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諺詞》는 한산이씨 문중에서 가전되어 내려오던 한글 가사로 작자가 명기되어 있고, 실학시대에 접어들어 실제 서민들의 생활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들임을 감안할 때 이 자료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작품은 모두 6편이다. <착정가>, <수로조천행선곡>, <초혼가>, <순창가>, <세장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임천별곡>의 개별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¹²⁾ 이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문학적 특성을 드러낸 연구들로, 애정시가의 측면에서의 애정시의 수용 논리에 대해 논리적 근거들로 작품을 분석하였고, 작품의 창작 배경과 대화를 통한 두 인물의 갈등 전개 과정에서 해학적 측면으로도 분석하였다. 또한,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조선 후기의 대화체 가사의 특수성에 대해 논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임천별곡>을 토대로 하여 다양하게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지만, 근대성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본고에서는 근대성 양상에 초점을 맞춰 논하고자 한다.

1. <林川別曲>의 작가 문제

<林川別曲>의 작가인 李運永(1722~1794)은 字는 健之, 號는 玉局齋이다. 稼亭 李穀의 15대손이고, 牧隱 李穡의 14대손이다. 그는 1755년에 司馬兩試에 뽑히고 1757년 進士가 되었으며, 1760년에 翊衛司洗馬를 제

소재영, 「새 자료 《언사》 연구」, 『조선조 문학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7.

- 11) 《諺詞》 연구에서 소재영 교수는 각 작품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작품에 대해 평가하였다. 李運永은 麗末 三隱의 한 사람인 收隱 李穡(1328~1396)의 14대손이다. 그에 대한 논의는 후대에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요즘 들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운영은 18세기의 인물로 英祖(1725~1776재위) 및 正祖(1777~1800)의 치세기에 외직과 내직을 두루 역임하는 등의 전형적인 사대부였다. 이운영은 당시 권력의 핵심부와 관계를 유지하며 근거리에 있던 인물이다. 李運永은 천 여수에 이르는 한시를 남겼고, 그 한시를 통해서 그는 고유의 틀로 인해 전형적인 사대부의 보편적인 시각을 표현했다. 지금 《玉局齋遺稿》라는 문집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언사에 나와 있는 국문가사를 통해 성격이 다른 서민의 애환과 사회를 비판하는 독특한 시각을 통해 자신의 의식세계를 표현함으로써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12) 박경남, 「18세기 애정시가의 출현과 <임천별곡>」, 『국문학연구』 7호, 국문학회, 2002. 줄고, 『<임천별곡>의 내용과 표현양상』,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승복, 「<임천별곡>의 창작배경과 갈등의 성격」, 『고전문학과 교육』 1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강혜정, 「<거사가>와 <임천별곡>을 중심으로 본 조선후기 대화체 가사의 특수성」, 『한민족어문학』 68집, 한민족어문학회, 2014.

수 받았지만 나가지 않았다. 1767년에는 漢城府主簿와 刑曹佐郎을 지냈고, 1769년에는 金城縣令, 1771년에는 沔川郡守, 1776년 黃澗縣監, 1785년 錦山郡守를 거쳐 通政大夫敦寧府都正에 오르고 1794년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로 올랐다가 이 해에卒하였다¹³⁾고 전한다. 이운영은 어렸을 때부터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란 전형적인 유교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사대부 집안사람이다. 그는 비록 높은 관직을 지내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관직에 올라 백성을 살피는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문학적 성향을 볼 때, 가사문학을 창작했다는 점과 가사작품의 소재와 내용, 표현방식이 매우 다양하고도 파격적인 작품들로 이루어졌다는 점, 서민들의 문화를 수용하여 그들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중세적 경향에서 벗어나 근대적 사상으로의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옥국재 가사의 작가 문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착정가>에서 <임천별곡>까지는 ‘도정공가사’라 하였고, <정주가>는 ‘황주공가사’라고 작가가 밝혀져 있다¹⁴⁾고 전한다. 또한, 고순희는 작품 속의 생원은 작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상화한 허구적 인물이거나, 혹은 그러한 경험을 하고 그것을 남들에게 이야기를 한 주변인물일 수 있다¹⁵⁾고 하였다. 박연호는 작자가 직접 경험하거나 목도한 현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항에 떠돌던 이야기를 가사로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¹⁶⁾고 하였다. 이승복은 《옥국재유고》 속에 수록되어 있는 <이여신만>이라는 한시 작품에 제시된 이여신이라는 인물과 <임천별곡>의 생원 영감의 가문과 행적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며 이여신의 경험적 일화를 바탕으로 하였음¹⁷⁾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토

13) 소재영, 위의 책, 아세아문화사, 1997, 390쪽.

14) 소재영, 위의 책, 아세아문화사, 1997, 388쪽.

15) 고순희, 「引喩와 諧謔의 미학- 이운영의 가사 6편」, 『이화어문논집』 5, 이화문학회, 1997, 362~364쪽.

16) 박연호, 「옥국재 가사의 장르적 성격과 그 의미」, 『민족문화연구』 3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0, 307쪽.

대로 한 논자의 견해는 작품의 내용이 다소 파격적이다보니 이운영이 <임천별곡>의 실제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 연구 가운데서 가장 타당한 것으로는 이여신이 <임천별곡>의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논자 역시 이 견해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여항의 인물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 <林川別曲>의 문학적 특징

<임천별곡>은 林川[지금의 부여군 임천면]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을 바탕으로 지은 작품으로, 작품명에 지명을 따다가 사용하였다. <林川別曲>은 매우 낭만적인 장편 서사가사로 한 늙은 생원과 할멈 사이의 사랑을 주제로 하여 대화체로 엮어 나간 노래인데, 단순한 사랑타령이 아니라 두 늙은이의 사랑이 해학적 표현을 통하여 객기어린 삶의 멋스러운 한 단면을 보는 듯하다¹⁷⁾고 보았다. 하지만, 논자는 <임천별곡>을 애정가사로 볼 수 있는가가 매우 의심스럽다. 물론 인물들의 사랑과 욕망이 주제이기는 하나, 이 작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늙은 생원의 풍자와 비판을 더 강렬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자는 이 작품을 애정가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임천별곡>은 위에서 제시한대로 신분적인 면에서는 평민이 양반을, 젠더적인 면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대해 풍자한 작품이다. 즉, 늙은 생원이 할멈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다가 면박을 당하는 과정을 해학적이고 풍자적으로 그렸다고 보았다. 또한, 이 작품은 대화체로 서술되어 있다. 할멈과 늙은 생원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형식으로 이야기의 서사구조가 진행된다. 작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 이승복, 위의 논문, 『고전문학과 교육』 1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18) 한대호, 「이운영의 가사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6, p3. 에서 재인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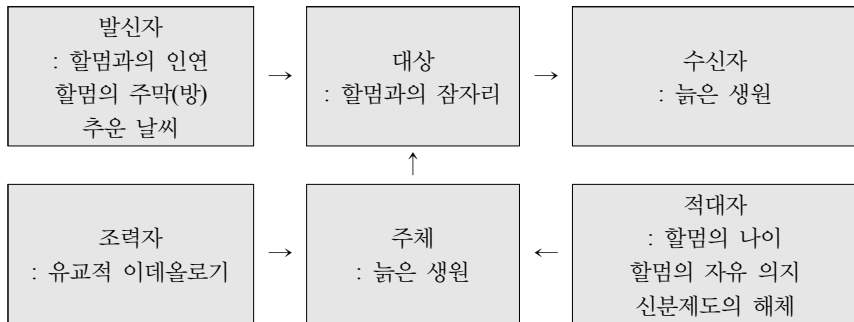
- ① 생원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할멈의 주막으로 찾아옴.
- ② 할멈은 안면이 있는 생원을 누추한 자신의 주막으로 들어오라 함.
- ③ 생원은 편안함을 핑계로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할멈과 하룻밤을 보내고자 함.
- ④ 할멈은 흉악하다며 뒤숭숭했던 꿈 이야기와 나이를 빌미삼아 거절함.
- ⑤ 생원은 욕망에 충실하라며 황혼의 기쁜 날을 함께 보내자고 할멈을 설득함.
- ⑥ 할멈은 생원에게 편잔을 주며 양반다운 행동을 요구하고 양반을 무시함.
- ⑦ 생원은 변성했던 가문을 회상하고, 할멈의 죄를 용서하며 부끄러워 돌아가겠다고 함.

<임천별곡>의 내용들이다. <임천별곡>은 대화체 형식의 작품이기 때문에 위의 분류 또한 대화의 주체로 나눠 모두 7부분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다시 크게 4단계- 도입, 전개, 위기, 결말-로 나누어 전개하였다. ①~②은 이야기의 도입부분으로 생원과 할멈이라는 인물의 정보를 제공하며,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알려준다. 생원과 할멈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드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요소들을 등장시켜 이야기의 실마리를 끌어내고자 한다. 즉, 생원의 경우는 몰락한 양반의 늙은 자손임을, 할멈의 경우는 주막을 하는 늙은 아낙임을 제시하여 그 두 인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③~④는 전개부분으로 사건의 전말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의 큰 사건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생원의 잠자리 요구(성적 요구)’를 두고, 할멈의 거절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듯하다. 하지만 서로의 의견 대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더 복잡한 진행과정을 발생시키는 단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⑤~⑥은 두 인물의 갈등양상이 잘 드러난다. 생원은 할멈에게 일방적인 욕구 충족을 요구하지만, 이는 생원과 할멈의 갈등만 더 악화된다. 서로의 의견 차이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이 점점 더 악화되는 부분으로 갈등의 극대화가 제시된다. ⑦은 작품의 결말부분으로 갈등에 대한 해결이 드러나야 하거늘, 이 부분에서는 생원의 회피와 도피로 이야기가 마

무리 된다. 생원은 죄 없는 할멈에게 죄를 씌우고, 생원은 자신의 넓은 아량으로 할멈의 죄를 용서하며 스스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떠난다.

IV. 〈林川別曲〉에 드러난 근대성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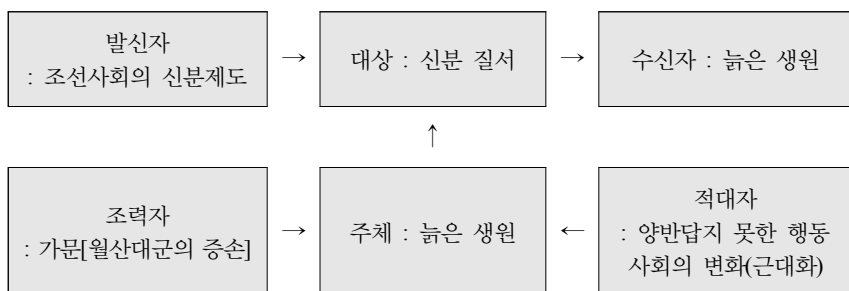
〈林川別曲〉의 문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에 드러난 근대성 양상을 논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林川別曲〉이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라고 하였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랑이 주제라기보다는 평민 여성이 양반 남성을 풍자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자는 이 작품을 18세기의 근대적 경향을 논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근대성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임천별곡〉에 드러난 이야기 구성에서 늙은 생원이 주체가 되는 ‘사랑과 욕망’과 ‘신분질서’에 대한 행위소 모형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임천별곡〉에서의 ‘사랑과 욕망’에 대한 행위소 모형]

행위의 주체는 욕망을 실현하는 자이기 때문에 늙은 생원이다. 주체인 늙은 생원은 할멈과의 잠자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은 할멈과의 잠자리이다. 그래야 늙은 생원의 사랑과 욕망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신자는 욕망을 일으키는 장소나 주체와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따라서 늙은 생원에게 할멈과의 잠자리를 제공하는 장소인 할멈의 주막(방)이 되고, 할멈의 주막(방)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 할멈과의 인연과 추운 날씨가 할 수 있다. 수신자는 주체가 대상을 구현함으로써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혹은 실현된 욕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늙은 생원이 된다. 늙은 생원의 욕망 추구를 도와주는 조력자는 조선 사회의 유교적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적대자는 늙은 생원의 대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할멈이 거절의 이유로 드는 나이가 우선적이며, 할멈의 자유 의지와 신분제도의 해체 역시 적대자라 볼 수 있다.



[[임천별곡]에서의 ‘사랑과 욕망’에 대한 행위소 모형]

이 행위 주체는 신분 질서를 실현하는 자이므로 늙은 생원이 된다. 엄격한 유교 윤리의 제도 안의 조선사회에 살고 있는 늙은 생원의 대상은 신분질서이다. 신분질서는 늙은 생원이 할멈과의 고난에서 빠져나갈 때 유감없이 사용하는 최선의 무기이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 늙은 생원에게 발신자는 조선사회의 신분제도가 된다. 신분제도 안에서의 신분질서는 꼭 지켜져야 할 가치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신자는 주체가 대상을 구현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늙은 생원이 된다. 신분질서 체계를 통해서 할멈에게 과시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늙은 생원의 신분질서를 방해하는 적대자는 양반답지 못한 행동이며, 사회의 변화 즉, 근대화라고 볼 수 있다. 양반답지 못한 행동은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지키지 못한 상황을 드러냈고, 근대화는 봉건사회의 대표적인 체계인 신분질서를 붕괴시켰다. 조력자는 주체가 대상을 추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므로 월산대군의 증손이라는 가문이 된다. 월산대군의 증손이라는 가문은 신분질서에서도 가장 우위의 존재이기 때문에 왕손의 자손이라 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세력을 의미한다.

위의 행위소 모형은 늙은 생원을 주체로 하여 그려진 모형이다. 주체와 대상은 시점에 따라 상황과 사건에 따라, 관계 설정의 방식에 따라 다원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¹⁹⁾ 이는 곧 주체의 입장에서 주체가 추구하는 대상에 따라 언급한 방식으로, 주체가 늙은 생원일 경우는 ‘사랑과 욕망’, ‘신분질서’로 나눠 그레마스 행위소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작품에 드러난 근대성 양상에 대한 논의로써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눠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 하나는 사랑과 욕망에 대한 저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분제도의 해체라 볼 수 있다.²⁰⁾

1. 사랑과 욕망에 대한 저항

18세기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세적인 사랑에 얽매어 있어서 다른 사랑에 대해 꿈꾸지 못했었다. 다만, 소수의 사람들은 그 중세적 사랑에서 벗어나 위해 노력했고, 이는 근대적 사랑으로의 변화에까지 이르기에도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중세적 사랑은 중세적 윤리관과 당대 현실이 형성한 신분질서와 가부장주의의 권력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랑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근대적 사랑은 유교적 이데올로기, 계급과 권력 관계, 제도를 떠나 양자가 평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이를 추구하는 것²¹⁾을

19) 김성도, 위의 책,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244쪽.

20) 조선 후기 작품들 가운데서도 박지원이나 이옥의 다수 작품에서도 사랑과 욕망에 대한 저항과 신분 질서의 해체에 대한 부분들로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가사작품 가운데서도 특히, <林川別曲>에서 이러한 근대적 특징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선정하여 <林川別曲>의 특질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21) 중세적 사랑이란 유교의 도덕관과 정절이데올로기, 신분질서, 가부장주의, 기생제와

의미한다.

본고에서 논자는 <林川別曲>에서 드러나는 이 같은 근대적 사랑을 할
멈의 자유 의지가 담긴 사랑과 욕망에 대한 저항으로 보고자 한다. <林
川別曲>은 대화체로 이루어진 작품이므로, 작품을 인용하는 부분에서도
대화형식으로 단락을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은 <林川別曲>에서
할멈과 늙은 생원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부분이다.

게 있는가 주인한멈 너말 잠간 드러보소 어제밤 셔리 후의 참도찰스
구돌이야 한멈의 아릿목은 덮고 차기 엇터흔고 진 조반(朝飯) 마른 음식
조석(朝夕)으로 지어느니 늙으니 허물홀가 나 조금 드러가세

작품의 첫 부분으로 늙은 생원의 대화 내용이다. “게 있는가 주인 한
멈”이라는 호칭을 첫 머리에 두는 것은 가사작품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
법 중 하나다. 아무 의미 없어보이지만,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가기 위
해 사용한다. 그러나 이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진짜 할멈에게 인기척을 하
기 위해 양반이 인사하는 방식으로 할멈을 부른 경우라고도 볼 수 있다.
늙은 생원은 할멈에게 할멈의 집에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고 할멈의 주막
(방) 상태에 대해 묻는다. 특히, 아랫목의 상황을 물어 자신이 묵어도 되
는 적당한 방인지를 염탐한다. 단지, 추위를 피해 하룻밤 묵어가려는 것
이 아니라 할멈과 함께 있고 싶은 늙은 생원의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늙은 생원은 ‘진 조반 마른 음식’을 만들어 내

축첩제 등 남녀에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얽매어 인간 사이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기를 열망하면서 존재의 연속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 및 실천
행위다. 근대적 사랑이란 당대의 윤리, 신분질서, 권력관계를 해체하고 서로 상대방
에 대해 특별히 생각하고 애뜻이 그리면서 그를 좋아하고 아끼고 위하며 무엇이든
배풀고 싶어 하는 가운데 정신적으로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육체적으로도 좀 더
밀접한 접촉, 나아가 하나가 되기를 열망하면서 그를 통하여 세계를 다시 바라보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를 발견하고 존재의 연속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 및 상대를 향한 강력한 실천 행위를 의미한다. 이도훈, 위의 논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17~19쪽.

는 할멈을 칭찬하며 할멈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표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멈의 아랫목’이다. 늙은 생원의 1차 목표는 할멈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할멈의 아랫목의 덥고 차기를 물어 상황을 듣고자 한다. ‘아랫목’은 방에서 가장 따뜻한 곳으로 불을 때면 가장 먼저 데워지는 부분으로, 웃어른 혹은 귀한 손님에게 내어주는 중요한 곳이다. 그 의미뿐만 아니라 할멈의 성적 의향을 물어보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늙은 생원이 할멈의 아랫목을 궁금해 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늙은 생원이 할멈에게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고 싶은 관심으로 볼 수 있고, 2차적으로는 할멈의 성적 의향에 대한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아 거기 누구신가 유성 손님 아니신가? 나그네 추우시니 主人이 無聊
하오 누추함을 허물 말고 이리 들어오소서

어허 무던하다 궁둥이 뜨듯하여 온다. 맹세코 오늘밤은 나가지 못할로
다. 할멈의 옷가슴에 손 조금 넣어보세

아 놀라구나. 흥악하게 바라볼까. 어제 오늘 꿈자리가 수력수력 하더라
니 오늘밤에 꿈을 꾸니 손가락을 던져 뵈데 世上天下 萬古朝鮮 八道에도
奇怪하다 생원님! 손을 꼽아 내 나이를 헤어보오 甲子乙丑 丙寅生에 還甲
進甲 다 지내고 수인의 스물하고 또 한 살 더 먹었네. 이제 무슨 마음 있
어서 서방 품에 자리일까

할멈은 늙은 생원을 ‘유성 손님’이라며 생원의 존재를 제시한다. 이는 늙은 생원과 할멈의 관계를 드러내는 구절이라 할 수 있다. 늙은 생원은 추운 날씨를 핑계 삼아 할멈의 집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할멈은 누추한 집이지만 생원을 들어오게 한다. 이러한 과정 중에 할멈은 “나그네 추우시니 주인이 무료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무료한 것과 추운 것은 아무 관련이 없지만, 할멈은 늙은 생원이 춥다는 것을 핑계 삼아 자신의 무료함으로 혼자 있음을 강조한다.

늙은 생원은 집으로 들어오라는 할멈의 행동에 매우 만족스러워한다. 늙은 생원의 요구에도 생각보다 쉽게 허락한 할멈은 까다롭지 않고 너그러우며 수더분한 행동으로 할멈의 성격을 드러낸다. 그렇다 보니 늙은 생원은 할멈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여 잠자리를 요구하고, 할멈은 이를 거절하기에 이른다.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입장에서 본다면, 할멈의 행동은 양반 남성의 요구에 대한 불응으로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멈의 행동은 큰 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양반 남성에게 대한 당당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곧 유교이데올로기의 저항으로도 볼 수 있다.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놓인 할멈이라면, 늙은 생원과 잠자리를 수락했을 것이다. 물론 할멈과 늙은 생원의 인연이 깊다 할지라도 신분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늙은 생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할멈은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할멈과 늙은 생원의 입장에서 모두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저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늙은 생원은 할멈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할멈은 고백을 거절하며 ‘만고조선 八道에도 일어날 수 없는 기괴한 일’이라며 현실을 부정한다. 하지만, 할멈의 거절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이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할멈은 ‘세상 천하 만고조선’에 사는 여인으로 다른 남자와의 잠자리는 기괴한 일이다. 즉, 할멈 역시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할멈이 늙은 생원과 잠자리를 거절하는 외면적 이유는 할멈의 나이 때문인 것이다. 할멈은 홀로 늙어가는 외로운 처지여도 서방을 품을 마음이 없다며 할멈의 자유 의지를 드러낸다. 이는 할멈과 늙은 생원은 서로 동등한 관계,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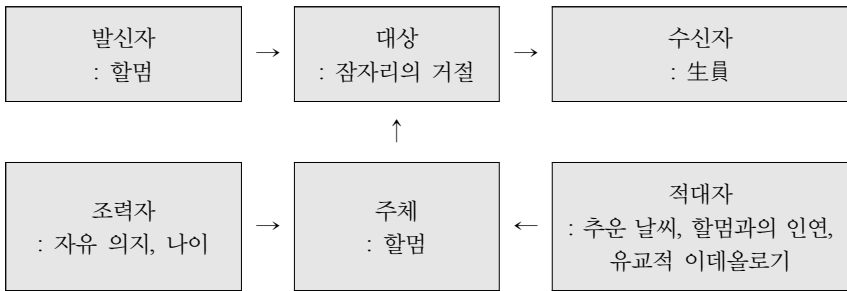
아 그 말 마오 늙은 말이 콩 마달까? 너도 늙고 나도 늙고 두 늙은이
서로 만나 너만 알고 나만 알고 귀신도 모르리니 인적이 드물고 야심한
黃昏의 오늘이라 范摐의 문자로 急擊勿失하여 얼른 뿌리치면 그 무엇이
관계할까?

늙은 생원은 거절하는 할멈에게 또 다시 잠자리를 요구한다. 늙은 생원은 할멈에게 서로 늙은 처지라 아무도 모르게, 인적이 드문 야심한 오늘 밤에 관계를 맺으면 된다고 설득한다. 또한, ‘늙은 말이 콩 마달가’라고 하여 나이가 들면 잠자리를 더 바란다면 거절 이유가 없음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할멈에게 비밀스럽게 황혼의 오늘을 즐기자고 제안한다. 즉, ‘비밀스럽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할멈과 늙은 생원은不正한 관계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할멈의 정절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성이 평민 할멈이 아니라 양반 여성이었다면 정절 이데올로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젠더, 나이, 신분은 정절 이데올로기를 이루는 요건이 되어버렸고, 작품에 드러난 할멈 역시 젠더, 나이, 신분이라는 요건들이 존재하지만, 할멈의 대화에서 늙은 생원의 거절 이유를 오로지 ‘나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절 이데올로기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늙음’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고,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개인의 성정과 욕망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할멈의 거부는 근대적 사랑을 추구하는 할멈의 자유 의지로써 ‘사랑과 욕망에 대한 저항’으로 보아야 더 타당할 것이다.

중세적 사랑에서 권력을 가진 자는 신분이나 가부장적 권력 관계에서 상위자인 양반 남성이다. 하지만 신분이나 권력 관계를 초월한 근대식 사랑에서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의 권력을 가진 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는 자이다. 다시 말해 상대방보다 매력이 있어 사랑을 덜 하는 자가 권력을 갖는다. 신분도 권력도 아니다.²²⁾ 이 가사작품에서

권력을 가진 자는 바로 할멈이다. 할멈은 늙은 생원의 사랑에 저항하며, 할멈의 뜻으로써 할멈의 자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의 우의에 있는 할멈은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늙은 생원에게 전달하기에 이른다.

<임천별곡>에서 늙은 생원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할멈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는 사건으로 전개되지만, 할멈은 이에 미혹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뚜렷하게 밝힌다. 이는 욕망에 대한 저항이라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욕망의 저항에 대한 행위소 모형’은 다음과 같다.



[[임천별곡]에서의 ‘욕망의 저항’에 대한 행위소 모형]

<임천별곡>에서의 주체는 근대적 사상을 가진 할멈이다. 할멈이 주체가 된 이유는 욕망에 대한 저항으로 근대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늙은 생원보다는 할멈이 근대적 사상이 조금 더 할멈이 추구하는 대상은 사랑과 욕망에 대한 저항이 되는 잠자리의 거절이다. 조력자는 할멈이 잠자리를 거절한 이유로 삼은 나이와 할멈의 자유 의지이다. 할멈에게 적대자는 늙은 생원을 집에 들어오게 된 추운 날씨와 할멈과의 인연이 된다. 주체인 할멈이 늙은 생원을 집에 들인 이유는 ‘추운 날씨’와 ‘할멈과의 인연- 3년간의 情’, ‘유교적 이데올로기’ 때문이며, 그런 까닭에 할멈은 늙은 생원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한다. 늙은 생원은 할멈

22) 이도홍, 위의 논문, 『한국시가연구』 28집, 한국시가학회, 2010, 91~92쪽.

의 집으로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할멈에게 잠자리까지 요구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할멈은 할멈의 저항으로 늙은 생원을 곁에 두지 않으며 이는 늙은 생원의 사랑과 욕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할멈은 늙은 생원에게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짓밟아버릴 만한 모욕을 주지만, 늙은 생원은 끝까지 할멈과의 잠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두 상황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늙은 생원은 할멈에 대한 사랑과 욕망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할멈은 늙어버린 나이와 양반으로 갖춰야 하는 도리에 대해 늙은 생원에 대한 사랑을 거절한다.

이 작품이 다른 작품에 비해 특이할 만한 것은 늙은 생원이 할멈에게 성적 호기심을 느꼈다는 것이고, 할멈은 이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했다는 것이다. 젊고 예쁜 기생도, 예쁜 아낙이 아닌 ‘할멈’에게 성적 호기심을 느낀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할멈이 양반 남성의 제안에 거절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일반적인 가사작품에 등장하는 양반 남성은 젊고 예쁜 기생들과의 사랑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작품의 인물은 기생이 아닌 할멈이고, 할멈의 나이는 대략 70세이며, 할멈은 어느 주막의 주인으로 등장한다. 높은 지위를 가진 지적이고 매력적인 여성이 아닌 일반 평민 할멈에게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생원의 태도에서 몰락한 양반층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즉, 여기서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양반의 체면을 제시하며, 자신의 욕망과의 대립된 지점을 드러낸다. 하지만 결국은 양반의 체면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중시하는 늙은 생원의 모습이 그려진다. 즉, 조선시대에 중시한 사회적 인식보다는 개인적 욕망의 발현을 꿈꾸게 되는 몰락한 늙은 남성의 모습으로 조선시대의 모순된 사회적 상황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신분질서의 해체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질서 체제를 세우고 가부장주의가 개인과 여

성을 과도하게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던 시기였다. 봉건사회가 서서히 해체되면서 하층에 있던 서민과 여성은 스스로 주체를 형성하면서 상층의 양반층과 가부장의 권력에 서서히 저항하기 시작하²³⁾였다. 이러한 저항은 상층의 지배층이나 가부장적 권력층인 남성에게 대해 노골적으로 풍자하고 비판하는 형태로 드러났다.²⁴⁾

이 양반 어디 양반 저다지 미쳤는가? 생원님도 양반이니 양반답게 행세하여 馬上의 逢寒食과 花笑檻前聲未聽을 사랑에 높이 앉아 풍월이나 할 것이지 흰 나룻 나무끼고 바지춤에 손을 넣고 閭閻으로 다니면서 계집 推尋 우습도다. 白鷺窺魚格을 어디 가 배워 오신고 오장머리 드러지고 엽통머리 빠져 보인다.

할멈은 ‘미쳤다’며 늙은 생원을 비난한다. 늙은 생원은 양반의 신분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품없는 행동으로 양반으로 가져야 할 품격을 떨어뜨린다. 이는 할멈의 양반답게 행동하라는 늙은 생원의 꾸짖음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일반 양반 남성들이 하는 양반적인 행동에 대해 서술하며 할멈은 늙은 생원에게도 양반의 체면을 제시하지만, 늙은 생원은 이와 반대로 행동한다. ‘바지춤에 손을 넣고, 여염으로 다니면서 계집 추심 우습도다’라 하여 양반의 체면에 먹칠하는 행동으로 동네를 기웃거리며 여인들에게 집적대는 늙은 생원의 모습을 제시한다. 할멈은 늙은 생원의 요구를 강력하게 거부함을 미쳤다는 말로 대신한다. 이는 곧 과감하게 양반을 무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늙은 생원의 모습은 최고의 권력을 지닌 양반의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이며,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도덕적인 태도에서 벗어난 양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묘사된다. 이 부분 어디에서도 늙은 생원의 양반됨을 드러내는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다.

23) 이도흠, 위의 논문, 『한국시가연구』 28집, 한국시가학회, 2010, 98~99쪽.

24) 이도흠, 위의 논문, 『한국시가연구』 28집, 한국시가학회, 2010, 98~99쪽.

내 아들 득손이는 及唱이 겸 庫直이 내 딸년 초심이는 水汲行首 난든
 변의 아잡삼촌 사오촌의 늦손자 오라버니네 삼반하인 군관청의 내 일족
 누가 아닐까. 半夜三更에 큰 소리로 외치게 되면 항우의 주먹 질 지 장비
 의 팔 다실 지 성식의 소 같은 놈 가랑앞에 붙붙는 놈 더벅머리 억병 먹
 고 위뚝비뚝 다 모여서 생원님 흰 상투를 뒤흔치고 자쳐들고 귀밑대기
 한 번 치면 벼룩불이 펄펄 나고 넓적한 잔등이를 천등과 북소리를 울리
 고서 양 미간을 행하여 한번 택견하게 되면 생원님 조그만 몸 추풍낙엽
 얻어볼까 제 무덤 두엄발채 콩태자로 자빠져서 아야지야 살인이야 안팎
 곱추 누가 되실까. 言飛千里라니 이 말이 공주가면 생원님택 알아서는 노
 발이야 대발이야 치마칼 전반 곤장 발치 귀양 누가 가실까 이 양반 열 없
 어도 그런 말 다시 마오

할멈은 늙은 생원의 양반답지 못함을 일깨워주려 한다. 할멈의 능욕
 대가로 할멈은 가족들을 동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보인다. 할멈 아들의
 직업은 급창이와 고직이다. 급창이는 사또의 명을 받아서 큰 소리로 전
 달하는 심부름꾼이고, 고직이는 창고지기다. 딸의 직업은 수급행수로 순
 서에 따라 관아에 물을 길는 노비다. 할멈은 관아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힘을 빌어 양반의 체면을 가리지 않고 양반을 욕보일 수 있음으로 늙은
 생원을 헐박한다. 그러나 그 헐박은 나름 먹혀 들어가는 듯하다. 씹씹하
 고 당당하던 늙은 생원의 모습은 볼 수 없고, 권위와 위세를 잃은 초라
 한 양반의 모습만으로 늙은 생원을 묘사하고 있다. 양반 남성의 신분과
 권위로서 평민 여성의 가족들에게 매 맞고 모욕당하는 행위이니, 이는
 신분사회를 벗어난, 조선의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흔들리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듯하다.

어허 통분하다. 큰 욕을 보겠구나. 양반을 모르고서 네가 그리할까? 가
 문일랑 묻지 마라 월산대군 증손이라. 종실을 보고 이른 말은 이생에서

그대로 듣지 마라. 물망이 거룩할 손 높은 관직에 올랐구나. 楚國의 三閭大夫 屈原의 내 동갑에 일이삼사 차례를 헤아려보면 七十 歲가 내 나이
라. 莊子千讀 孟子千讀 야기 적에 공부하여 詩賦疑義自表樂은 行遊手帶
奇僻詩라. 王羲之 趙孟頫의 楷子로서 公都會 白日場의 重別試 大小科의
일등 이등 壯元 둘 때, 每榜에 高騰하니 九萬里 長天 상의 춤 났어 期約
하더니 京華의 縉紳大夫 날 모르는 이 누가 있으며 湖右一道의 某某한
어르신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아 다 우리 친구로다. 전승지 중화부사 죽
자 살자 하는 의요 너희 고을 案前 님도 어릴 적에 노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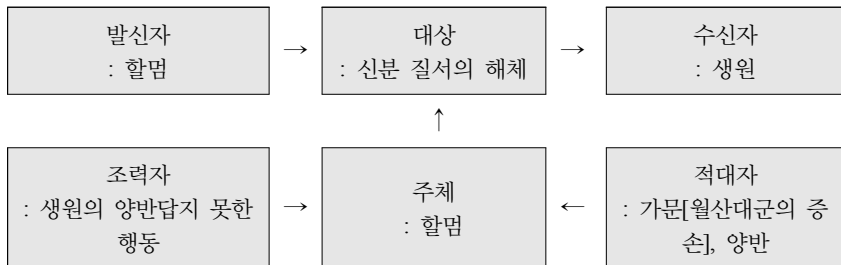
늙은 생원은 조선시대의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전형적인 양반임을 강조한다. ‘양반을 모르고서 네라서 그리홀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늙은 생원의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가장 잘 드러냈다. 또한, 가문은 월산대군 증손이라며 왕실 자손임을 제시한다. 즉, 그는 왕실 가문의 자손임을 과시하며 양반계층이 누릴 수 있는 ‘권력’과 ‘지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곧바로 ‘감중실 니른 말은 차싱 고지 듯지마라’라고 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알아차린다. 그러면서도 늙은 생원은 할멈에게 당한 치욕과 협박이 원통하고 분하다며, 양반 대접을 해주지 않는 할멈이 원망한다. 더구나 늙은 생원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가진 인물임을 ‘장자와 맹자를 천 번이나 읽고, 왕희지, 조맹부의 해자로 글씨도 잘 쓰며, 어릴 적에는 공부를 잘해서 인정받은 인물이었음’을 강조하여 유학자로서의 면모만을 강조한다. 京華의 縉紳大夫들과 湖右[지금의 대전]一道에서 자신을 모르는 어르신이 없을 정도라며, 넓은 인간관계와 양반으로서의 자부심과 권위를 과시한다. 또한, 늙은 생원은 할멈이 사는 고을의 案前과도 어렸을 때 함께 놀았던 아주 친한 관계였음을 드러내며 할멈의 사건을 수습하려 한다.

本官의 呈狀하고 營門에 依送하여 續大典 펼쳐놓고 士夫凌辱 調律하여 杖一百 刑間일치 류삼천리 遠地定配 일종 律文하여 依法施行 하려더

니 곰곰 앉아 생각하니 그렇지 아니하다 나그네야 주인이야 삼년 내의
정이 깊어 계집의 고만 말을 摘奸하여 무엇하리 滄浪自取는 옛말이 날
속이라 河海같은 大度量의 부지일소 無可奈何 아이야 말 내어라 고향으
로 돌아가자 어저 뒤꼭지 부끄러워 어이갈고

늙은 생원의 마지막 대화이다. 늙은 생원은 할멈에게 당한 치욕과 모욕으로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드러내지만, 늙은 생원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빨리 마무리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늙은 생원을 도리어 할멈에게 죄를 묻겠다고 하지만 이는 늙은 생원이 스스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양반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할멈에게 벌을 주고자 하는데 이는 늙은 생원 나름의 험박인 것이다. 할멈의 죄명은 사부능욕죄인데, 이 사부능욕죄는 오롯이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이어졌을 때에만 해당된다. 사부능욕죄는 매우 엄한 형벌이 가해지는 죄지만, 작품의 서술 시점에서는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늙은 생원은 할멈에게 그간의 정이 있고, 계집의 그만한 말로 적간할 필요가 없다며 자신의 바다와 같은 넓은 도량으로 용서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신분 제도의 해체가 진행되고 양반의 권위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할멈 역시 양반의 허풍임을 간파한 듯하다. 이에 늙은 생원은 뒷꼭지가 부끄럽다며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논자는 <임천별곡>에 드러난 근대성 문제로 ‘사랑과 욕망에 대한 저



[<임천별곡>에서의 “신분질서의 해체”에 대한 행위소 모형]

향’과 ‘신분질서의 해체’를 꼽았다. 봉건사회에 등장하는 가사작품에서 사랑과 욕망은 지배층인 양반 남성과 피지배층인 평민 여성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 역시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위배되는 주제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신분질서의 해체는 잦은 전쟁과 사회 혼란으로 인해 신분제도는 혼란을 가져왔고, 이는 작품의 내용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해준다. 봉건사회의 붕괴와 해체는 더 이상의 발전을 꿈꿀 수 없는 사회에 대한 반향이며, 조선시대에서 살필 수 있는 근대성 양상으로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임천별곡>에서 주체는 할멈이다.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멈이 추구하는 대상은 봉건사회에 대한 붕괴로 인한 신분질서의 해체다. 할멈은 자신의 신분과 권력을 상관하지 않고, 늙은 생원을 조롱하고 비난한다. 오히려 늙은 생원은 양반의 체면과 권위를 상실한 채 할멈의 집을 떠나오게 된다. 양반과 평민의 관계가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양반과 평민의 위계질서의 간격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력자는 늙은 생원의 양답반지 못한 행동이다. 이로 인해 신분질서의 해체를 형성하는 유교적 이념의 붕괴가 된다. 이를 궁극적인 원인이 될 수 없지만, 이 작품에서는 환유로 볼 수 있다. 적대자는 양반의 신분임을 강조하는 월산대군의 증손이라는 가문과 많은 양반 동료들을 들 수 있다. 아직도 남아 있는 신분제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몰락한 양반이기는 하지만 양반이라는 신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지켜졌던 유교적 이념은 18세기에 이르러 서서히 붕괴되었다. 이 작품은 평민이면서 여성의 신분을 가진 할멈이 양반이면서 남성의 신분을 가진 늙은 생원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곧 유교윤리 질서의 붕괴를 드러내고, 신분제도의 해체와 양반이라는 신분의 추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

18세기는 중세와 근대의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본고에서는 18세기 시가 작품 가운데서도 李運永의 가사인 <林川別曲>에 드러난 근대성의 문제를 논하였다. 근대성의 양상에 대해서는 ‘사랑과 욕망에 대한 저항’과 ‘신분질서의 해체’라는 두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임천별곡>은 양반 사대부인 이운영의 작품이다. 이 작품을 이운영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보는 경향도 있었지만, 이운영은 진보적인 실학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양반됨을 욕보이면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논자는 여항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 작품은 애정가사라고 알려졌지만, 풍자비판적인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애정가사로 보기 어렵고,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서사적 양상이 대화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양반 남성들의 권력은 여성들에 비해 우위에 있었으니 양반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작가가 아무리 진보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양반이라고 해도 양반됨을 욕보이면서까지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지는 않았을 듯하다. 이에 논자는 자신이 실제 겪었던, 자전적인 이야기로 볼 수 있다는 이전의 견해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고 느꼈고,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짐작해 보는 것이다.

<임천별곡>은 유교적 이데올로기, 신분제도 등의 조선의 봉건사회에 대한 저항과 반항의 형태로 이타적인 요소들로 변화하는 근대적 조선을 드러내고자 하는 노력이라 볼 수 있다. 작품에서 생원은 양반이라는 신분과 늙음이라는 고지식함으로 할멈에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자 잡 자리를 요구한다. 이에 할멈은 양반이라는 ‘신분’과 늙은 생원이 가진 유교적 고지식함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제시한다. 논자는 이

를 ‘저항’과 ‘해체’라는 말로 대신하였지만, 18세기 조선의 봉건사회에 대한 부패한 지배층- 물론 이 작품에서는 부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지배층이라는 양반-과 착취당하는 서민층- 늙고 힘없는 여성이라는 가장 힘없는 피지배층-의 삶을 생원과 할멈으로 비유하여 제시한 것이라 생각한다.

18세기 등장한 전통적인 봉건사회의 비판은 중세와 근대를 구별 짓는 헤게모니의 변화로 드러났고, 이러한 헤게모니의 변화는 18세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드러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8세기 가사 문학에서는 이러한 헤게모니가 정확하게 구분되지는 못하였지만,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정착되어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자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으로 <임천별곡>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강혜정, 「〈거사가〉와 <임천별곡>을 중심으로 본 조선후기 대화체 가사의 특수성」, 『한민족어문학』 68집, 한민족어문학회, 2014.
- 고미숙, 『18세기에서 20세기 초 한국시가사의 구도』, 소명, 1998.
- 고순희, 「引喩와 諧謔의 미학- 이운영의 가사 6편」, 『이화어문논집』 5, 이화문학회, 1997.
- 김성도, 『구조와 감성으로- 그레마스의 기호학 및 일반 의미론의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 김학성,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1982.
- , 「근대논의 문제와 18세기 우리 시가」, 『한국시가연구』 28집, 한국시가학회, 2010.
- 박경남, 「18세기 애정시가의 출현과 <임천별곡>」, 『국문학연구』 7호, 국문학회, 2002.
- 박연호, 「옥국재 가사의 장르적 성격과 그 의미」, 『민족문화연구』 33집,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0.
- 박수진, 『<임천별곡>의 내용과 표현양상』,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소재영, 『조선조 문학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7.
- 윤성현, 『후기가사의 흐름과 근대성』, 보고서, 2007.
- 이도흠, 「18~19세기 동아시아시론의 변모양상과 시조의 실제」, 『고전문학연구』 36, 한국고전학회, 2009.
- , 「18~19세기의 시조에 나타난 사랑의 태도 유형 분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 , 「18세기 시조에서 탈중세성의 지향과 근대성 문제」, 『한국시가연구』 28, 한국시가학회, 2010.
- 이상보, 『18세기 가사전집』, 민속원, 1991.
- 이승복, 「<임천별곡>의 창작배경과 갈등의 성격」, 『고전문학과 교육』 1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 정 민,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 한대호, 『이운영의 가사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6.

The Aspects of Modernity in *ImcheonByeolgok*(林川別曲)

by Okgukjae(玉局齋), Lee Un-young:

Based on Using Greimas's Actant Model

Park, sujin

This study was contemplated about an aspects of modernity that was discovered of *ImcheonByeolgok*(林川別曲) written by Okgukjae Lee, Un-young in 18th Century. It was composed time that unprecedented state in the 18th century. So, I considered that Modernity was the most appeared at 18th Century. During this period, Changes has happened in ideology and system in term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is change is the beginning of a new modern consciousness.

There is also a tendency to think of *Imcheonbyeolgok* as the autobiographical story of Lee, Yun-young. It seems that Lee, Yun-young has a progressive scholarly thought, but he did not reveal his own situation by insulting him. Therefore, I am not realistically valid for being able to see it as an autobiographical story that he actually experienced. Also, although *ImcheonByeolgok* is known as a love song, it is hard to see it as a love song because its satirical features are strong. and It is characterized by the peculiar form of narrative being described as a dialogue.

I picked two aspects of modernity in *ImcheonByeolgok*. One is resistance to love and desire, and the other is disintegration of the order of identity. The two aspects of this paper were presented as Greimas's Actant Model. *ImcheonByeolgok* is the result of efforts to show the changing modern Joseon Dynasty's elements in the form of resistance and resistance to Joseon's feudal society, such as Confucian ideology and identity systems. Thus, I suggested the corrupt ruling class of Joseon's feudal society and the exploited working class life as an old living and

a grandmother instead of ‘resistance’ and ‘disposal’ in the 18th century.

The criticism of traditional feudal societies that emerged in the 18th century turned out to be a hegemony that distinguishes the Middle Ages from the Modern Age, which resulted in differences between the ages before and after the 18th century. Although these hegemony were not clearly distinguished in household literature in the 18th century, it was established and developed in the 19th century. I suggested that Lim’s Star Song was an important work tha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bringing about this change.

Keywords : *ImcheonByeolgok*(林川別曲), 18th Century, Modernity, identity order, desire, resistance, dismantling

투고일 : 2018. 11. 23. / 심사일 : 2018. 12. 10. / 심사완료일 : 2018. 12. 17.